

## 세월호 참사와 악의 문제 - 아렌트를 중심으로

박종균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선악의 이원론
- III. 근본적인 악
- IV. 악의 평범성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6.01>

---

• ABSTRACT •

---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Problem of Evil: Based on Hannah  
Arendt's the Concept of Evil

Prof. Park, Jongkyunn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Hannah Arendt is an intellectual who has faced the problem of evil more than anyone else, and if we take Arendt's reflection seriously, the reflection of the evil she worked on must convey some significance to us as we attempt to understand the world. This research argues that Arendt's reflection on evil is still relevant today, and in particular can provide critical advice on the ills of evil in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not ended. Uniquely, Arendt saw the intention of realizing the concept of absolute good and evil, such as religion or ethics, in the political realm, resulting in the destruction of the public realm, which can be said that the reflection on evil, along with the theory of behavior and public sphere, forms an important axis in the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unreasonable to understand her political philosophy without understanding her theory of evil, since Arendt thought politics was the best way to avoid evil. This study focuses on three issues. First, what Arendt's warning about the uncritical involvement of good and evil in politics in the traditional way is discussed. Second, we will examine the radical and absolute evil that Arendt became interested in after actually experiencing totalitarianism. Finally, as Arendt observes the Eichmann trial, a remnant of totalitarianism, she further refines his position on evil, which is the concept of the banality of evil. This paper reflects on the problem of evil of the Sewol ferry tragedy, the biggest trauma of our society, through Arendt's discussions of evil.

**Key words:** Hannah Arendt, Radical Evil, Absolute Evil, the Banality of Evil, Totalitarianism, Sewol Ferry Disaster

---

## I. 들어가는 말

악의 문제에 대한 논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 왔다. 전근대에서는 주로 종교적으로, 근대에서는 철학적으로, 현대 냉전시기에는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논구되었고, 현재는 정치영역에서 폭력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영역에서의 악의 논쟁은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세력을 악과 연계시키려는 불순하고도 악한 의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자리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현대사를 보더라도 정치문제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종교적·윤리적 색채를 띠고 비판적 성찰이 원천적으로 배재된 채 일방적 기제로 작동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떻게 참혹하게 유린되었는지,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간성과 인류에 대한 범죄적 악이 발생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그 모든 악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의도와 활동은 선으로 규정하고 대립적 상대의 그것은 악으로 규정하여 적대시하는 이원론이 작동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악의 문제가 전통적으로 종교적·윤리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차원의 논의가 그대로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될 때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간파하고, 나아가 악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함을 강조한 사람이 아렌트(Hannah Arendt)이다. 독특하게도 아렌트는 정치영역에서 종교나 윤리에서와 같은 절대적인 선악 개념의 실현 의도는 공적 영역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악에 대한 성찰은 행위론 및 공적 영역에 관한 이론과 더불어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렌트는 악을 피하는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 정치라고 생각했다”<sup>1)</sup>는 맥거완(John

McGowan)의 주장을 고려할 때, 그녀의 악의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그녀의 정치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라 말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녀의 악의 논의가 전체주의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치적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악의 문제와 정치적인 관계가 논의의 초점을 이룰 것이다.

아렌트는 그 누구보다 악의 문제와 직접 맞닥트린 흔치 않은 지성인이기에 만일 우리가 아렌트의 성찰을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그녀가 작업했던 악의 성찰이 세계의 이해를 시도하는 우리에게 모종의 유의미성을 전해줄 것임에 틀림없다. 아직도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렌트가 경험했던 정도의 극악무도한 전체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자는 아렌트의 악에 대한 성찰이 오늘날에도 적실성이 있으며, 특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서의 악의 사태에 대한 비판적 혜안을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sup>2)</sup>

여기서는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과 악의 절대성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에 관한 아렌트의 경고가 함의하는 바를 논구하고자 한다. 둘째, 전체

1) John McGowan, *Hannah Arendt: An Introduction*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107.

2) 국내에서 아렌트의 악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홍원표의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선악의 문제,” 『정치사상연구』 11집 2호(2005)와 박종균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렌트의 악의 개념 비교연구,” 『長神論壇』 49-2(2017)가 있다. 전자의 연구는 아렌트의 선악 이론을 존재론적, 인식론적, 실천론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선악의 문제를 ‘시작 능력’의 발휘여부와 연계하여 다룸으로써 아렌트의 선악이론이 현대정치 이해에 유의미함을 논구했다. 후자의 연구는 아렌트가 정신적 힘에 대한 신뢰와 상반되게 악에 대한 욕망은 정신적 힘을 이탈할 수 있다고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이해가 보완되어야 함을 논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사태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아렌트의 악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리적 숙고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의를 실제로 경험한 아렌트가 관심하게 된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악, 즉 인간을 잉여적(superfluous) 존재로 전락시키는 전체주의적 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잔재인 아이히만 재판을 참관하면서 악에 대한 입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게 되는데, 소위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 개념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아렌트가 논의한 악의 개념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트라우마, 세월호 참사에 나타난 악의 사태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개신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무관심했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교회 성장에 두고 이를 위해 ‘정치적인 것’을 사상(捨象)시킨 결과, 세계 거부와 공적 영역이 부재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악과 ‘악의 평범성’의 만연을 단적으로 보여준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비판될 것이다.

## II. 선악의 이원론

아렌트는 선악의 이원론이 갖는 문제점을 『혁명론』(*On Revolution*)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그 책 2장 “사회적 문제”(the social question)에서 그녀는 미국 소설가 멜빌(Herman Melville)의 소설 『빌리 버드』(*Billy Budd*)에 관해 간략히 논의한다. 여기서 아렌트는 절대적 선이 인간사의 과정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다면 시인에게 의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그들로부터 절대적 선이 절대적 악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sup>3)</sup> 여기서 절대적 선은 인간세계를 벗어난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도덕 또는 사적 판단의 도덕을 말한다. 빌리 버드는 절대적 선의 화신이고, 클레가트는 악의 화신으로 묘

3)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ress, 1963), 77.

사된다. 선과 악의 투쟁에서 선은 자신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에 결국 폭력으로 악을 응징하게 된다. 결국 선이 악과의 대결에서 악에 대해 악으로 응징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르 선장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미덕과 악덕이 공존하는 정치영역에서 절대적인 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절대적인 선으로 자처한 빌리 버드를 처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미덕과 악덕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은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멜빌의 소설은 인간세계에서 절대적 선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불가피하게 악덕보다 더 혹독한 폭력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은폐 상태에서 벗어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절대적 선은 더이상 선하지 않고 스스로 타락하며 나타나는 곳마다 타락을 수반할 것이다.”<sup>4)</sup>

우리는 절대적 선이 인류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중세나 종교개혁 운동과 종교전쟁의 시기의 역사를 통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극단적인 종교근본주의 자들이나 과격한 신념주의자들의 소행을 보면서 아렌트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를 절대적인 선악으로 양분하는 단순한 이분법 자체가 악의 남용임을 너무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절대적이고 단순 명료한 선악 이원론은 도덕적 확신과 종교적 신념으로 곧바로 인도하기에 위험스러운 사고다. ‘사탄·마귀들과의 전투’를 외치는 기독교 근본주의나 ‘지하드’를 외치는 이슬람 무장 근본주의는 물론 소위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악에 대항하는 대의명분 속에서도 차이, 다양성, 정치(精緻)함 또는 오류가능성은 자리할 여지가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는 온건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는 곧바로 무능함이나 우유부단 또는 악에 대한 동조 행위나

4)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8), 77.

‘우리’에 대한 적으로 몰리게 된다.

절대적 선악 이원론은 정치가 아닌 진리에 집착하기에, 타자와의 의견 일치나 합의를 목표로 하는 언어에는 관심이 없기에, 실제 정치적 영역에서는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힘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는 언어를 통해 인간의 개성을 표출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다는 점과 공적 영역에서 의견이 나뉘고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언어로 조정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선악 이원론’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sup>5)</sup> 환언하면 정치는 사려 깊은 의견을 말하고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숙고하는 작업을 요하는 것이기에, ‘절대적 선악’의 설정이란 아렌트에게서 지극히 반정치적이며, 정치에 대한 심대한 훼손일 수 있다. 선악의 문제에 대한 인습적이고 상투적인 담론은 비판적 사유를 질식시키고 복잡 다양한 문제를 축소·은폐시키는 냉소적인 정치적 무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주의적 개신교나 대중매체를 통해 흔히 접하게 되는 ‘악의 세력’, ‘악의 축’, ‘사탄’, ‘마귀’, ‘악의 하수인들’과 같은 공격적 수사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데는 성공적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정치를 파괴하는 언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동의나 논박 또는 합의의 과정을 무용하게 만들며, 참된 의미에서의 설득이나 토론도 불필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불변하는 신앙처럼 견고한 신념이란 이미 설득이나 토론이 필요 없는, 즉 그 자체로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아렌트의 정치론에 따르면, 정치란 인간의 잠재능력이 우리의 자발성(spontaneity), 탄생성(nativity), 복수성(plurality)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이기에 바로 이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5) Ibid., 27.

안 된다. 자발성은 자유와 더불어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에서의 삶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근원적 자질이다. 탄생성이란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정치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즉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 되는 것을 말한다.<sup>6)</sup> 그리고 복수성이란 인간 개개인의 다양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각각의 인간은 모두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표출하는 행동 간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이 평등하게 행위하고 말할 때 실현되는 판단이나 토론 그리고 실제적인 공적인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 아렌트의 정치 개념은 진리적 성격을 띤 절대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복수성에 주목하게 한다.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의견이 드러나는 곳이 정치이기에, 정치적으로 된다는 것은 물리적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루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렌트에 따르면, 절대적인 선악 개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며, 악의 복잡 다양한 원인과 이에 대한 의견의 복수성이 파괴되는 것이 곧 인간의 복수성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설득과 토론의 역할을 부정하는 절대적 준거와 척도의 도입으로 야기된 것인 바, 이러한 준거를 통해 특정한 인간의 행위는 일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 평가될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복수성이 더이상 존중될 필요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선악의 이원론을 견지하는 종교근본주의나 이데올로

6) 아렌트는 교육의 본질을 인간이 세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라 말한다. 교육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 책임을 질만큼 세계를 사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런 증거 파괴로부터 세계를 구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교육과정 통해 인간은 공적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Arendt,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Penguin Books, 1961), 175.

기가 ‘독단화’(indoctrination)에 다름 아님을 적시하고 있다. 「이해와 정치」(“Understanding and Politics”)라는 글을 통해 아렌트가 이해와 독단화를 뚜렷하게 대비시키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는 “명료한 결과를 결코 생산하지 않는 복잡한 과정”이며,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활동”이다.<sup>7)</sup> 우리가 이 세계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서 인간세계에 출현한다. 이런 새로운 존재인 우리가 정치적인 존재들의 공동체인 세계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친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정신작용이 이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해는 바로 세계사랑(*amor mundi*)의 토대를 이룬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를 거부하고 자기 안에 갇혀 머무는 것이 독단화이다.<sup>8)</sup> 결국 이해의 결핍과 왜곡이 독단화이자 세계 증오인 셈이다.

그런데 아렌트는 이해와 독단화를 구분 짓는 경계로서 ‘말’을 내세우는 데, 이해는 말의 힘과 연결되지만, 독단화는 말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이해를 지님으로써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의 변화와 다양성에 반응할 계기를 얻게 된다. 나아가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말을 통해 현실에 반응해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 현실을 넘어서게 만드는 정치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단적인 사람은 자신의 독단에 사로잡혀, 말이 사유에 영향을 주지 못함으로써 그의 사유는 자기 생각만을 반복할 뿐이기에 현실과의 진정한 만남은 불가능해짐은 물론 현실에 대한 이해 역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독단적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자신의 독단을 관철시키는 데만 사용되기에 말은 화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투쟁의 도구로만 활용되기에,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는 소멸되고, 결국 폭력을 수단으로 호소하게 된다. 폭력은

7) Arendt, “Understanding and Politics,” in *Essays in Understanding 1930-1954*, ed. Jerome Kohn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94), 312.

8) *Ibid.*, 308-309.

항상 말을 통한 설득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9)</sup>

바로 이러한 독단화가 전체주의를 생산하고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아렌트에 따르면, 바로 전체주의 지배체제는 이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테러 같은 독단이 행위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전체주의 정치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요소를 이용하고 남용해 사실적 실재의 토대, 즉 이데올로기가 원래 그 힘과 선전가치를 이끌어내는 사실적 실재의 토대를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sup>10)</sup> 정치인 것이다. 공산주의이든 반공주의이든 이데올로기는 이념적 뿌리를 현실에 두고는 있지만, 중국에는 오히려 현실을 망각하고 왜곡하게 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경험에 근거하지 않으며, 나아가 경험에 따른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지각 가능한 사물 뒤에 감추어진 ‘보다 참된’ 현실”을 고집하며,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욕감을 요구한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현실을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논증의 방법을 통해 사유를 경험에서 분리시키고 이데올로기가 가진 일관된 체계에 사유를 결박시킨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데올로기가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사유 속에서 형성된 때문이며, 철저하게 폐쇄적인 자기 완결성을 특징으로 구축되었기에 경험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sup>11)</sup>

이데올로기가 현실적으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낳게 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체계에 내재한 논리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현실과 경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이상적 목표만을 제시하기에 이는 운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을 추구하는 운동에서는 무차별 대량학살과 같은 폭력은 큰 어려움 없이 수반될 수 있는

9) Ibid., 309.

10)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8), xv.

11) Ibid., 470-471.

것이다.<sup>12)</sup> 테러는 전체주의 정부가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믿게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테러는 개인의 비인간화를 만들어 내고, 개인들 간에 형성되는 자유의 공간을 파괴하며, 개인의 자발성을 압박하고, 이데올로기가 지시하는 대로 실천하게 만든다. 테러는 “개인들 간의 경계와 의사소통 채널들을 철로 만든 하나의 끈으로 대체해 그들을 너무나 단단하게 묶어버려, 마치 그들의 복수성이 소멸하고 거대한 차원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된다.”<sup>13)</sup>

우리사회에서 한때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되었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현실에서 논의될 수 있는 악의 현상이라 말할 수 있겠다. 반공주의를 무오류적 신앙적 교의로 수용하고 다른 이념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했던 냉전기 반공투사 또는 기독교 반공투사들의 내면에는 절대적 선악이원론이 깊숙이 자리했다 하겠다. 특히 냉전적 반공주의와 친화성을 갖는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는 반공주의가 절대선이라 확신하기에 21세기 현재에도 공산주의는 절대적 악이고 그에 대해 공격하는 자신들은 절대선이라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스탈린의 극좌 공포정치나 나치의 반공·극우정치 체제의 국가폭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냉전·반공주의 역시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대량학살을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 선의 반정치적 폭력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박근혜 정권이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사용한 것 역시 국가폭력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프레임에 동조한 사이버 언론은 국가폭력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찌라시’라 불리던 수구언론은 박근혜 정권의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입각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

12) Ibid., 473.

13) Ibid., 465-466.

가족은 물론, 책임을 추궁하려는 야당과 시민운동단체들을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고 획책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규정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사태를 두고서도 무능한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정략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비극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쟁을 일삼는 몰염치한 집단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세월호 사건의 비판세력이 마치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던 것이다.<sup>14)</sup>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진실 규명의 외침을 범질서를 해치는 폭력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정권을 경호하는 개로 자처함으로써 참사 유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했던 것이다.

### III. 근본적인 악

절대적인 선악 이원론이 정치 영역에 개입되었을 경우 전체주의적 파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자칫 우리 시대는 나치나 스탈린 체제가 아니기에 오늘날의 악의 성격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전체주의의 전대미문의 근본악에서 그녀가 파악하고자 고군분투했던 바가 이러한 점이다. 여기서는 아렌트의 근본악의 핵심이 인간을 잉여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현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전체주의의 기원』이 출판되기 전 아렌트는 스승 야스퍼스의 생일에 맞춰 사본 한 부를 보냈다. 야스퍼스는 신비한 물음(“야훼께서 시야에서 너무 멀리 사라지지 않았는가?)이 담긴 노트로 아렌트에게 답했다. 그리

14)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감리교신학대 도시빈민선교회’, ‘광주진보연대’, ‘인천사회복지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엄마의 노란 손수건 인터넷 모임(대표: 정모 통합진보당 안산시 단원구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누가 왜 세월호를 정치 선동에 악용하는가”, 『동아일보』, 2014.05.10.

고 야스퍼스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근본적이었음이 입증되어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 현대 범죄들은 성서의 십계명에서 제시된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서구 전통은 인간의 저지를 수 있는 대부분의 악들이 이기심의 악덕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난감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악** 또는 **근본적인 악**은 더이상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죄스런 동기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과 같은 현상과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인간을 잉여적인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즉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도 않고서도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서도, 단지 그들의 품위에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아예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모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인간에서는 자발성이 이에 해당한다)이 제거되자마자 이러한 근본악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의 전능성(단순한 권력욕 정도가 아니라)에 대한 망상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만일 한 개인이 전능하다면 그때는 사실상 복수의 인간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맙니다.<sup>15)</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렌트가 ‘총체적 지배’(the total domination)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총체적 지배란 한 개인의 외부세계와 내면세계의 모든 것을 철저히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모든 인간을 그런 총체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전체주의는 이데올로기와 테러를 통해 총체적 지배를 실현한 상태이다.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 또는 학살수용소(Vernichtungslager)는 전체주의적 지배의 최종적 결과물”<sup>16)</sup>

15) Hannah Arendt and Karl Jaspers, *Correspondence, 1926-1969*, ed. Lotte Kohler and Hans Saner, trans. Robert and Rita Kimber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95), 166.

16) *Origins of Totalitarianism*, 441.

이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적 근본 신념이 입증되는 실험실”<sup>17)</sup>이다. 전체주의 정부는 강제수용소를 통해 공포정치를 구현했고, 이런 수용소 체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총체적 지배를 실현한 것이다. 총체적 지배는 “각각의 개별 인격체가 결코 변함이 없는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존재로 환원됨으로써 결국 이러한 반응 덩어리 각각이 다른 덩어리와 임의로 교환 가능한 존재”로 전락할 때 가능해진다. 그래서 전체주의 정권은 “무한히 다양하고 차별화되는 인간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해 인류가 오직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만들려고 한 것이며, 이데올로기와 테러를 사용해 “종족 보존이 유일한 ‘자유’인 동물종과 유사한 인간종을 창조”한다는 목표를 추구했던 것이다.<sup>18)</sup>

강제수용소는 인간의 자발성을 제거하고 인격을 제거해 단순한 반응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곳이다. 수용소에서는 육체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이 파괴된 “생명 없는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근본악”의 출현인 것이다.<sup>19)</sup> 이 근본악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잉여적 존재가 되는 시스템과 관련해 출현했다.”<sup>20)</sup> 이는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처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악(absolute evil)”이 된다.<sup>21)</sup> “체계적인 고문과 체계적인 아사는 항구적인 죽음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 속에서는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실질적인 방해를 받았다.”<sup>22)</sup> 절대적인 악이란 어떤 특정한 개념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야스퍼스와 대화에서 말했듯이 “커다란 악”이라는 의미에서, 즉 악의 크기에 있어서의 절대성을 말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다.

17) Ibid., 437.

18) Ibid., 438.

19) Ibid., 438-443.

20) Ibid., 459.

21) Ibid.,

22) Arendt, “The Concentration Camps,” *Partisan Review* 15/7(1948), 748.

사람에게 궁극적인 탈출구가 되는 죽음조차도 방해할 정도여서 죽을 수도 없게 만드는 체제, 어떠한 탈출구도 허용되지 않는 최악의 지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용소는 절대적인 악의 장소다. 수용소는 정치가 중단된 곳이며, 따라서 인간이 인간이길 중지당한 곳이다.

절대적인 악, 근본악을 만들어내는 총체적 지배로 향하는 길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것의 “첫 단계는 인간에게서 법적 인격(juridical person)을 살해하는 것이다.”<sup>23)</sup> 이것은 나치가 죽음의 수용소를 세우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아렌트는 동성애자, 집시와 더불어 유대인에서도 사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법적 제한에 주목했다. 이러한 자의적인 체계의 목적은 일정한 국민을 법적 보호에서 추방하고 국적 박탈을 통해 비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들이 무법적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 혹은 강제수용소를 만들고 그 영역을 정상적 형벌체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예외적 지역으로 만든 뒤 정상적인 법 절차와 무관하게 수용될 사람들을 선택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법을 통해 실행되었다. 한 인간의 권리를 파괴하고, 한 개인 속에서 사법적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는 한 개인을 철저하게 지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셈이다.<sup>24)</sup>

두 번째 단계는 인간에 내재하는 도덕적 인격(moral person)을 살해하는 것이다.<sup>25)</sup>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이런 살인과 저런 살인의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누군가가 배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거나 모든 면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아내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처지가 된다면, 그리고 자살조차도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23) *Origins of Totalitarianism*, 447.

24) *Ibid.*, 451

25) *Ibid.*.

살해를 의미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결정해야하는가? 그러한 선택은 더이상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니라 살인과 살인의 선택이다. 나치에 의해 세 자녀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죽이라는 나치의 강요에 직면한 그리스 어머니의 도덕적 딜레마를 누가 풀 수 있겠는가?<sup>26)</sup>

이런 상황들은 “양심이 부적절해지는 조건”이며, “선을 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러한 “전체주의 정권의 범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공범 관계는 희생자에게까지 확대되며, 그렇게 하여 진정으로 총체적이 된다.”<sup>27)</sup> 선과 악의 구분이 반복해서 흐려지는 딜레마 상황이 총체적으로 전개되면서 인간의 도덕적 인격은 파괴되고 만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총체적 지배를 향한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근본악에 직면하게 된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인간 개성(individuality)의 파괴이다. 법적 인격과 도덕적 인격이 파괴된 이후에도 인간이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마지막 보루는 개인들의 차별화된 개성, 개인의 유일한 정체성이다. 인간의 권리와 더불어 양심까지도 상실된 상황에서 인간이 스스로 고립 속으로 도피해 들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개성을 보존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길는지 모른다.<sup>28)</sup> 하지만 이런 개성, 인간의 고유성조차도 전체주의 정권의 잔혹성에 의해 신체적 파괴와 함께 여지 없이 파괴되고 만다. 수용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인간 신체에 대한 절대적으로 냉혹하고 체계적인 파괴”는 개성 파괴의 획책이었고,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sup>29)</sup>이었다.

---

26) Ibid., 452.

27) Ibid.,

28) Ibid., 453.

도덕적 인격을 살해하고 사법적 인격을 말살시키고 나면, 개별적 인격성에 대한 파괴는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 왜냐하면 개별적 인격성의 파괴는 자발성, 말하자면 환경이나 사건에 대한 반작용에 근거해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 즉 자기 자신의 것에서 비롯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sup>30)</sup>

인간 존엄성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의 파괴는 바로 자유의 능력에 대한 파괴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즉 주어진 환경과 사태에 대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인과율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힘, 즉 자유의 능력에 대한 파괴를 말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총체적 지배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전체주의는 자유로운 자발성의 파괴에서만 가능하며, 비정치적인 자발성조차도 철저하게 파괴됨으로써만 가능해진다.<sup>31)</sup> 전체주의 정권은 무제한적 권력을 가지려 하는데, 이러한 권력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측면에서 확실하게 총체적으로 지배함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인간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시스템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강제수용소는 인간의 자발성과 복수성의 흔적을 남김없이 지워버리려는 끔찍한 실험을 통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사물(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을 아렌트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근본악이라 여기는 것이며, 인간을 잉여의 인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의 의미가 이에 해당한다.

공포에 대한 숙고를 통해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너무도 노골적인 민낯,

---

29) Ibid., 454.

30) Ibid., 455.

31) Ibid., 456.

즉 인간을 처분 가능한 인간존재로 만들고, 그들의 인간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을 변형시키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복수성, 자발성, 탄생성과 개별적 인격성을 파괴하기 위해 지극히 정교한 시도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아렌트는 전대미문의 현상으로서 우리 인간이 압도당하게 되는 현실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던 모든 것을 붕괴시켜버리고 마는 현상으로서의 근본악을 극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근본악 개념이 오늘날에도 적실성을 갖는 것인지 묻게 된다. 『전체주의의 기원』 마지막 페이지에서 “전체주의식 해결방식은 전체주의 정권들이 퇴락한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행을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경감시키기에 불가능해 보일 경우 언제나 강력한 유혹의 형태로 살아남을지 모른다”<sup>32)</sup>는 아렌트의 말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인간을 잉여화시키는 근본악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한 세월호 참사에서 도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근본악이라 말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해결방식이 21세기 우리 사회에서도 작동되고 있고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재현이었기 때문이다. 아렌트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인 것’(the social)과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차이가 망각되고 오히려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을 압도한 사태가 인간의 잉여화가 발현되는 근본악의 토양이 되었던 셈이다. ‘사회적인 것’이란 사적인 생존적 차원이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할 것이 공적인 관심사가 된 현상을 일컫는 아렌트의 특수 개념이다. 즉 노동은 가정에 속하는 문제였으나 중세를 거쳐 근대로 접어들면서 국가의 주된 공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원래는 사적이던 것이 공적인 관심사로 대체된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다.<sup>33)</sup> 그러나

32) Ibid., 458.

아렌트의 문제의식은 ‘사회적인 것’의 지배에 있다. 그로 인해 다양성이 부정되고 하나의 관점과 척도가 중심이 되어 버린 것이다. 생산성과 수익성, 금전적 가치, 점수, 효율성 등과 같은 획일화가 모든 사태를 평가하는 지배적 기준이 되어 다른 모든 차원을 평가하려는 태도를 함의한다. 이에 비해 ‘정치적인 것’이란 다원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또한 이 맥락에서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서로를 설득과 대화를 통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사안들을 말한다. 문제는 ‘정치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과 구분할 수 없게 혼재시키고 나서 ‘사회적인 것’이 공적인 영역의 중심을 차지했을 때, 즉 정치의 생명인 복수성과 다수성 그리고 다원성과 차이성이 무시되고 경제적인 것을 유일한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삶의 세계에 적용시켰을 때, 정치는 종언을 고하고 인간의 삶은 평준화되어 피폐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4)</sup>

바로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인 것이 소외되고 사회적인 것이 지배한 사태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본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효율성과 생산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됨으로써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수성과 다원성이 파괴됨과 더불어 인간적 삶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인 것’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제는 모든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시켰을 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마저 순식간에 소멸되는 위험사회, 인간의 잉여화에 무감각한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한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는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관련 기업들의 사익과 이윤추구에 우선권을 내준 이명박·박근혜정권의 규제완화가 일차적 원인이라 하겠다. 그것은 재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경제적 이익, 기업의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제

33) *The Human Condition*, 30.

34) 김선욱, 『정치와 진리』 (서울: 책세상, 2001), 43-51 참조.

시스템이 불러온 재난이다.<sup>35)</sup>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부터 세뇌된 바, 우리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와 재벌의 성장 신화에 대한 신뢰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그것의 진실성에 대한 회의는 절대 존엄에 대한 의심이며,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순간 물리적이고 정신적 폭력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군사 정권이 치밀하게 주도한 ‘사회적인 것’의 이데올로기 운동은 전시에 상응할만한 총동원 체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절대 행복의 길이라 세뇌당한 것이다. 그러나 설사 행위하는 인간의 삶이 유보되고 민주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지위가 크게 손상을 입더라도, 불법과 탈법이 저질러 진다해도 경제적 삶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국민의 삶은 당연히 행복해질 것이며, 이러한 꿈과 욕망을 국가는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리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의 대형참사를 이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적 믿음은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지배권력 동맹이 얼마나 총체적이며 근본적인 악이라는 사실 앞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그런 부패를 올바르게 감시할 견제력이나 규율조차 미비하다는 현실 앞에서 더 큰 절망감을 느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기득 권력의 범죄적 동맹에 대해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35) 이명박 정권부터 이미 무분별한 규제완화, 민영화와 민관유착, 부정부패가 증착되고 그에 따른 국가책임 및 능력의 실종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예비하고 있었다 하겠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목해야 할 바는, 앞선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국방·외교등 전통적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태뿐만 아니라 태풍·화재·붕괴사고 등 각종 재난과 신종 전염병 창궐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안보’를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적용시켰다는 사실이다. 포괄적 안보의 핵심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이다. 그렇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청와대가 직접 대형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필수적 안전규제를 완화한다거나 구조업무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선박연령 제한 완화조치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한국해운조합이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병천,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불량국가의 정치 경제,” 『기억과 전망』 30(2015), 355.

깨어있는 시민들을 향해 수구 권력은 가차 없이 상투적인 이념적 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념 공세에 국가권력, 자본, 극우적 종교집단, 언론권력, 어용학자들이 총동원 된 것은 당연했다. 부패를 감시해야 할 기관들과 언론은 권력의 주구로 자칭했고, 사회정의와 공공의 선을 선포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수구정권을 옹호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처럼 파시즘적으로 조작된 여론하에서 비판적 견해는 목살될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온갖 부정과 부패 그리고 모순이 총체적으로 응축된 범례(reference)였다 하겠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 중의 하나로 인식하라는 어용 지식인들의 궤변이나 의문의 7시간은 대통령의 사생활일 뿐이며 특정 사이버 종교의 일탈 현상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선정주의적 짜라시 언론의 여론 조작,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향해 이념적 프레임으로 공격했던 정치인들의 몰염치한 언어폭력, 대한민국을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월호를 침몰시켜주셨다는 비정상적인 목사의 망언 등은 세월호 사건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것'의 사상(捨象)의 다양한 양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삶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관계성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독재적 발상이기도 했다. 관계성의 축소는 공동체의 일을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시민들은 먹고 사는 생업이나 향락적인 것에만 관심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전문가에게, 경제 문제는 경제전문가에게, 법적인 문제는 법조인들에게, 신앙의 문제는 종교전문가에게 맡겨두라는 요구는 '정치적인 것'의 소멸, 삶의 정치에 대한 압살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고귀한 생명이 잉여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태 앞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제 그만 잊고 침묵하라는 억압에 맞서 그 고통을 인간적으로 또렷하게 말하는 법과 권리를 처절하게 배우고 인식하지 않으면, 인간의 잉여

화를 조장하고 그런 사태에 무감각해지게 하는 전체주의의 명령이 언제 든 되살아 날 것이다.

#### IV.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출판 이후 솔렘(Gershom Scholem)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실제로 내 견해는 악은 결코 “근본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극단적이며, 깊이나 어떤 마성적 차원을 소유하고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균류(fungus)가 지표면을 퍼져나가듯이 전 세계에 만연되고 세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thought-defying)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어떤 깊이에 다 다르려고 하며 근본에까지 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악과 관련되는 순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되고 맙니다.<sup>36)</sup>

이것은 선만이 근본적일 수 있으며, 악에 대해서는 사고가 도달하는 순간 깊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악에 대해서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기에 근본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 분명 아렌트 본인이 정립한 ‘근본적인 악’의 개념과는 모순되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 역시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에서 아렌트의 “악은 근본적일 수 없다”는 말이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인간을 잉여적인 존재로 만드는 근본악’에 관한 그녀의 생각을 뒤집은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스타인은 아렌트의 진의에 대한 해명

36) Hannah Arendt, *The Jew as Pariah*, ed. Ron H. Feldman (New York: The Grove Press, 1978), 250-251.

에서, 아렌트가 원래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잉여적으로 만드는 근본악의 현상에 대해 ‘근본적’이라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 인지를 물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악’이라고 했을 때는 자칫 문자적 의미로 악이란 심오하고 감추어진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무엇이 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근본적’이라는 뉘앙스와 ‘사유하기의 무능력’(thoughtlessness)에서 비롯된 ‘근본악’의 개념이 상충되지 않을까하는 고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악을 거론할 때는 인간을 잉여적으로 만드는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무사유가 강조될 때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번스타인에 따르면 이것은 표현상의 차이일뿐 근본적으로는 악의 문제와 관련해 도덕적 기준들이 전체주의 앞에서 거의 보편적인 붕괴를 맞았다는 점이 아렌트의 진의라고 말한다.<sup>37)</sup> 필자는 번스타인의 해석처럼 아렌트가 아이히만 재판 참관을 통해 깨달은 ‘악의 평범성’은 인간을 잉여적으로 만드는 근본악과 양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히만 같은 살인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근본악을 잘 수행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여긴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후기에서 아렌트가 밝히는 바에 집중하면, 맥베스나 리처드 3세는 악을 일상적으로 범했던 자인 데 반해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sup>38)</sup>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아이히만의 행위가 악한 동기나 악한 의도로 설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이히만이 업무처리 능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37) Richard Bernstein, *Hannah Arendt and the Jewish Question* (Cambridge: MIT Press, 1996), 137-153 참조.

38)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Penguin Books, 1963), 287.

하면서도 “아이히만에게서 어떠한 완벽한 악마적 심연(diabolical or demonic profundity)을 찾을 수 없었다”<sup>39)</sup>는 말과도 연결된다. 결국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통해 악에 대한 비신화화를 시도한 것이며, 악이 초월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인 인습을 파괴하고자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악의 평범성’ 개념이 오늘날 갖는 함의를 논하기 전에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책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에필로그 시작하기 전 마지막 문장) ‘악의 평범성’은 아이히만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리포트하면서 인용된 것이다.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그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상투어(cliché)를 생각해냈다. 교수대 아래서 까지 그의 기억은 마지막 장난스런 말을 던지게 했던 것이다. 그는 의기양양해서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란 사실조차 잊게 만들 어버렸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바로 공포스런 교훈, 말과 사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말이다.<sup>40)</sup>

‘악의 평범성’은 이 대목에서 딱 한번 등장한다. 그녀의 보고서가 출판되었을 때 책의 부제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본래 기사화 되었던 『뉴욕커』지(誌) 기사에는 이 부제가 붙지 않았다.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다 명료한 진술은 1971년의 강의

39) Ibid., 288.

40) Ibid., 252.

“사유하기와 도덕적 숙고”에서 나타난다.

몇 년 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재판에 관해 보고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학설의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고 매우 사실적인 의미에서 어마한 규모로 자행되었던, 그 어떠한 구체적인 사악함의 사례나 병리적인 것 또는 행위자의 내면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행위의 현상을 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저지른 자의 인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비범한 천박성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행위가 아무리 흉포하다해도 행위자가 괴물이라든지 악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앞서 있었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의 행동이나 그의 개인사로부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구체적인 특성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우둔함이 아니라 기묘할 정도로 순전한 사유하기의 무능력(sheer thoughtlessness)이었습니다.<sup>41)</sup>

아렌트는 가장 오래되고 고정화된 도덕적·법적 신념(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악한 동기와 의도를 필시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에 관한 물음을 제기한다. 아이히만이 극도로 사악하고, 가학적이며, 악독할 뿐 아니라 병적인 괴물일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그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그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거나 느끼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지르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였다”<sup>42)</sup>는 것이다. 물론 그의 행위를 볼 때 괴물 같은 인간이기에 교수형 당해 마땅하다. 그러나 행위의 동기나 의도는 평범하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란 아이히만의 행위를 언급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41) Arendt, “Thinking and Moral Considerations: A Lecture,” *Social Research* 38, no. 3(1971), 417.

42) *Eichmann in Jerusalem*, 276.

다. 왜냐 그의 행위는 결코 평범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악의 평범성’이란 행위자 아이히만의 동기와 의도를 의미한다. 역사학자들은 아렌트의 아이히만 묘사가 지니는 적절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sup>4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판이 아렌트의 핵심 주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즉 평범한 동기나 의도를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악마로 여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나치의 죽음의 기계에서 단순한 부품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은 대단치 않은 부품(cog)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당신은 정말 작은 부품에 불과했는가?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핸들 역할을 했는가?”라고 묻는 아렌트의 질문은 언제나 타당하다.<sup>44)</sup>

우리는 아렌트가 경험한 전체주의의 악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범주, 개념, 기준 같은 것에 더이상 의존할 수 없다. 누군가가 고의적인 악한 의도를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무고함을 확신해야한다는 그릇된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악한 의도를 갖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저질러진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해 책임

43) 브라우닝(Christopher Browning)은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은 단지 아이히만만이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는 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아렌트는 부분적으로 아이히만의 연기 작전에 속아 넘어갔다”고 지적한다. 케사라니(David Cesarani)는 자신의 아이히만 전기에서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성격 묘사에서 얼마나 실수를 범했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했다(David Cesarani, *Eichmann: His Life and Crimes* [London: Vintage Books, 2005]). 스탱네트(Bettina Stangneth) 역시 아이히만이 재판정에서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했는데, 비록 그 연기가 사형을 면할 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아렌트를 속이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Bettina Stangneth, *Eichmann Before Jerusalem: The Unexamined Life of a Mass Murderer*, trans. by Ruth Martin [New York: Alfred A. Knopf, 2014]).

44) Arendt, “Personal Responsibility Under Dictatorship,” *Responsibility and Judgment*, ed. Jerome Kohn (New York: Schocken Books, 2003), 31.

지는 방법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아렌트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시대의 악에 관해 새롭게 이해하길 원한다면, 악한 행위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악마적인 행위는 악마 같은 존재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습적인 사고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악을 제거해 주기에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문제 설정에서는 적어도 우리 또는 우리 편이 악마가 아니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적대한 쪽을 일단 악마화시켜놓고 난 후 그들의 행위에서 악이 발견될 때, 그들과의 성스러운 전쟁은 정당화되고 그들과 대적하는 우리의 행위는 미화되고 힘을 얻는다. 필시 제주, 여순, 보도연맹 학살에 가담했던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악마라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에 양심의 가책 없이 악행을 선행처럼 자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무지막지한 테러를 성전이라 주장하는 종교적·정치적 수사나 그런 테러를 악마적이라 규정하는 수사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하겠다.

아이히만의 전기를 쓴 케사라니(David Cesarani)가 책의 결론 부분에서 말하는 대목은 아렌트의 심정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량학살 행위는 아이히만이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이라할 정도로 인간성의 평범한 특징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아이히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차라리 잔혹 행위자를 생산하고 종족멸절을 번식시키는 모체(matrices)라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대량학살을 자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기획할 수도 있는 것이다 ... 21세기에 이른 지금 난민들과 “인종청소”의 희생자로 넘쳐나는 세계에서, 인종주의와 열광주의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 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편대를 이루어 인종멸절을 자행한 군

인들과 그들의 지휘관들을 심판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이히만은 더욱더 우리 시대의 인간인 것처럼 보인다.<sup>45)</sup>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 주는 교훈이다. 끔찍한 악을 자행하기 위해 괴물이나 변태적인 가학자 또는 악독한 인간이 될 필요가 없다. 일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성실한 시민들, 심지어 자신의 의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종교지도자들조차도 악마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현대의 관료적·기술적 조건은 이런 현상을 더욱 용이하게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아렌트가 지적한 대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의 책임성이 완화되는 조건이 저절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갖지 않고 끔찍한 악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그들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아렌트 주장의 요점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왕왕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부 열광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닌 교회 구조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 행위에 무능하고 비합리적이며 비민주적인가를 스스로 예시해준다. 아렌트가 정치적 경험을 통해 토로했던 말하고 사유하는 능력에서의 순전한 무능함, 그 무능함에서 비롯되는 악의 평범성과 전체주의 현상의 실례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보여 줄 수도 없을 것이다. 아렌트가 특별히 천박하다 여길 정도로 사유할 능력이 부재한 인간은 말하는 능력의 결여,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었고, 바로 이런 인간이 전대미문의 인간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평범한 얼굴의 악마가 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전체주의체제는 사유하는 능력이 결핍된 아이히만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비된 체제이다. 편협한 교의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이상시하는 전체

45) David Cesarani, *Eichmann: His Life and Crimes*, 386.

주의적인 개신교는 여전히 수많은 사유하고 말하는 능력의 장애인을 양산시키고 있다.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양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 지도자(Führer)의 명령을 진리라 맹신하고 순응하는 노예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무사유적으로 태극기,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신앙이요 애국이라는 선전선동에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증해주는 것이리라. 최근 대형교회 담임교주 세습 문제에 대처하는 교회 권력자들과 세습 이데올로기에 맹종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은 왜 한국 개신교가 정치적인 것에 무능했는지 그리고 그토록 쉽게 이념적이거나 주술적으로 세뇌될 수 있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정치적 공통감도 심리적인 공감능력도 상실한 목사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역시 공통감이 결여된 구성원들을 향해 무사유적이고 무판단적이며 말로서 성립될 수 없는 말 아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여 내뱉음으로써 이미 충격과 슬픔에 빠진 우리 시민사회에 개신교의 근본적이며 평범한 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김삼환 목사);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오정현 목사); “세월호 사고 난 건 좌파, 중북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야. 왜? 이용할 재료가 생겼다고, 아니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해야지, 광화문 네거리에서 광란 피우라고 그랬어? ... 이게 국민 수준이냐는 말이야.”(전광훈 목사); “슬픔을 당할 때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게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단체든 우상이 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것이 ‘언터처블(untouchable)’,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이재철 목사); “진상조사는 정부에 맡기자.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 맡기자, 책임자 처벌은 사법부에 맡기자, 진도 체육관에서 나오고 팽목항에서도 나오고 단식 농성장에 서도 서명 받는 것에서도 나와 달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희생자 가족이 아니라 희망의 가족이 돼 달라.”(최성규 목사)<sup>46)</sup>

교회가 이런 말로서 성립될 수 없는 비범할 정도로 천박한 무사유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락한 사태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독단적인 교회 언어로 묵살시키려 한다면, 그리고 성스러운 교회가 온갖 불법과 탈법이 신적 권위의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통렬한 자기비판과 변혁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 지배가 작동되는 집단 수용소나 사이버 광신도 집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렌트가 적어도 판사들에게는 존경심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여러 범죄에 대해 교사하기는 했으나 직접 자행한 적은 없다는 아이히만의 주장에 대한 판사들의 판결은, 아이히만의 범죄의 규모가 엄청나고 또 범죄가 전개된 방식과 구조가 아주 복잡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살인과는 구별된다는 판단이었다. 아렌트가 동의했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희생자의 규모가 크고 가해자의 행위 또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살해 현장에서 직접 있었는지, 실제로 누가 방아쇠를 당기고 가스 밸브를 조작했는지의 여부로 살상에 대한 책임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렌트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문구는 아이히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근본악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그것은 언제나 적실성을

46) 지유석, “세월호 인양에 맞춰 개신교의 민낯을 조명하다,” 『오마이뉴스』, 2017.03.27.

갖는다.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처럼 엄청나고 복잡한 경우, 즉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행동방식(그들의 다양한 지위에 따라 입안자, 기획자, 실행자)으로 참여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도록 자문하고 유혹했다는 일상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범죄들이 희생자의 수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범죄에 개입한 사람들의 숫자의 측면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수많은 범죄자들 가운데 희생자들을 실제로 죽인 것에서 얼마나 가까이 또는 멀리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책임의 기준과 관련된 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와 반대로 일반적으로 **살상도구를 자신의 손으로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책임의 정도는 커진다.**(필자 강조)<sup>47)</sup>

## V. 나가는 말

한국개신교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해방정국에서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민주적인 정권들,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이명박·박근혜 정권, 그리고 촛불정국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 왔다. 한국개신교는 세계사랑과 거리가 멀었기에 오히려 더욱 세속주의적일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변화해야하는 지에 무관심했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교회성장에 두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었다. 교회 외양의 치장을 위해 전념했기에 우리의 사유는 철저히 세계와 무관하게 걸돌 수 있었다. 우리끼리만의 사랑과 친교에 집중하고 그런 관계가 가져다주는 무세계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인 것처럼 착각했을 때, 우리 사회로부터의 게토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제도적

47) *Eichmann in Jerusalem*, 246-247.

교회에 대한 무반성적인 현신이 신앙적 삶의 율범이자 의무인줄로 믿고 맹목적으로 충성할 때, 그리고 돈의 힘을 매개로 발휘되는 힘이 교회를 움직여 나갈 때, 그리고 예수의 말씀과 삶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온갖 우상과 미신이 지배하는 망령된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때, 우리의 삶은 행위와 무관한 동물적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세계를 황량한 사막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차례 민주정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슬한 정책들이 제도적·윤리적 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사유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정치적 도덕성에 부적합한 지배자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와, 그를 국민의 뜻으로 탄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리 또한 습득하고 있었어야 했다. 신앙인들은 당연히 사회 안에서 민주공화국의 시민 자격을 학습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와 연관된 시민 그리스도인의 양성에 힘써야 마땅했다. 21세기의 교회라면 최소한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타인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 공적인 영역이 확보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근본주의적인 한국개신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나 교리주의 독선에 사로잡혀 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반(反)정치적인 것에 집착함으로써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다. 오직 교회 성장과 교세 확장, 교리 사수와 우리와 다름을 혐오하고 그들에 대한 전투적 공격에 혈안이 된 교회의 모습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면서 정작 행위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 자유와 삶의 의미에 관심 없는 노예 상태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교회가 상당한 비중으로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원리를 거부하는 편에 가담했다는 것은 반정치적인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내 준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아렌트는 우리로 하여금 현대 세계에서 악에 대한 난감한 문

제에 직면하도록 이끈다. 3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근본적인 악에는 교묘하고도 복잡한 수많은 권력의 공모 내지 협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근본적인 악의 문제는 나치, 소비에트, 냉전시대의 이념 전쟁의 와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의 생산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불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뿌리를 상실한 사람들의 황폐화는 근본악을 야기하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생존의 필연성에 예속되어 동물성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진정한 인간성을 발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잉여화 시키는 근본악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악이다.

관료화된 사회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학살시켰던 범죄 책임자들의 행위는 분명 전대미문의 악마적 소행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악마들이었고 그래서 악마적 의도를 갖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에 연루된 크거나 작거나 모든 부품들은 결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는 아이히만들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거인 아이히만, 자본 권력을 소유한 거대한 아이히만들, 그들의 수하에서 명령을 따랐던 수많은 작고 평범한 아이히만들과, 그 모든 사태를 왜곡시키고 권력의 비호에 여념이 없었던 기레기 아이히만들, 그리고 무엇보다 순전한 무사유로 말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룩을 위장한 천박한 교주 아이히만들과 비극적 사태에 온몸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1차원적 삶에 무사유적으로 마냥 행복감에 도취되었던 작은 그리스도인 아이히만들, 우리 모두가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 참고문헌

- Arendt, Hannah and Karl Jaspers. *Correspondence, 1926-1969*. ed, Lotte Kohler and Hans Saner, trans. Robert and Rita Kimber.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95.
- Arendt, Hannah.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ress, 1963.
- \_\_\_\_\_. *The Jew as Pariah*. ed. Ron H. Feldman. New York: The Grove Press, 1978.
- \_\_\_\_\_. "Personal Responsibility Under Dictatorship." *Responsibility and Judgment*. ed. Jerome Kohn. New York: Schocken Books, 2003.
- \_\_\_\_\_. "The Concentration Camps." *Partisan Review* 15/7(1948).
- \_\_\_\_\_. "Thinking and Moral Considerations: A Lecture." *Social Research* 38, no. 3(1971).
- \_\_\_\_\_. "Understanding and Politics." in *Essays in Understanding 1930-1954*. ed. Jerome Kohn.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94.
- \_\_\_\_\_.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Penguin Books, 1961.
- \_\_\_\_\_.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Penguin Books, 1963.
- \_\_\_\_\_. *The Human Condi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8.
- \_\_\_\_\_.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8.
- Bernstein, Richard. *Hannah Arendt and the Jewish Question*. Cambridge: MIT Press, 1996.
- Cesarani, David. *Eichmann: His Life and Crimes*. London: William Heinemann, 2004.
- McGowan, John. *Hannah Arendt: An Introduction*.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 Stangneth, Bettina. *Eichmann Before Jerusalem: The Unexamined Life of a Mass Murderer*. trans. Ruth Martin. New York: Alfred A. Knopf, 2014.

- “누가 왜 세월호를 정치 선동에 악용하는가”, 『동아일보』, 2014.05.10.
- 김선욱. 『정치와 진리』. 서울: 책세상, 2001.
- 박종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렌트의 악의 개념 비교연구.” 『長神論壇』49-2 (2017).
- 이병천.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불량국가의 정치 경제.” 『기억과 전망』 30 (2015).
- 지유석. “세월호 인양에 맞춰 개신교의 민낯을 조명하다.” 『오마이뉴스』, 2017. 03.27.
- 홍원표.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선악의 문제.” 『정치사상연구』11집 2호(2005).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0년 0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06일

---

 • 국 문 초 록 •
 

---

아렌트는 그 누구보다 악의 문제와 직접 맞닥트린 흔치 않은 지성인이기에 만일 우리가 아렌트의 성찰을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그녀가 작업했던 악의 성찰이 세계의 이해를 시도하는 우리에게 모종의 유의미성을 전해줄 것임에 틀림없다. 연구자는 아렌트의 악에 대한 성찰이 오늘날에도 적실성이 있으며, 특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서의 악의 사태에 대한 비판적 혜안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렌트는 정치영역에서 종교나 윤리에서와 같은 절대적인 선악 개념의 실현 의도는 공적 영역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악에 대한 성찰은 행위론 및 공적 영역에 관한 이론과 더불어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렌트가 악을 피하는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 정치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악의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그녀의 정치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라 말해도 무방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전개된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과 악의 절대성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에 관한 아렌트의 경고가 함의하는 바가 논구된다. 둘째, 아렌트가 전체주의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관심하게 된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잔재인 아이히만 재판을 참관하면서 악에 대한 입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게 되는데, 소위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 개념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트라우마, 세월호 참사의 악의 문제를 악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들을 통해 성찰한다.

**주제어:** 한나 아렌트, 근본악, 절대적인 악, 악의 평범성, 전체주의, 세월호 참사

---